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쓰기의 통합적 접근 모색

—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고춘화*

< 차례 >

- I. 들머리
- II. 통합적 접근의 기본 관점
- III. 읽기와 쓰기 영역의 검토
- IV. 통합적 접근을 위한 수업 설계
- V. 마무리

I. 들머리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는 이상적 교육의 모습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까지 진술하여 보여준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란 무엇인가, 국어교육은 왜 하는가, 국어교육은 무엇을 하는가, 국어교육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답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교과서와 교사를 통해 실제 학교 교육의 변화로 이어진다. 교육과정이야말로 학계와 현장의 중간 고리라고 말할 수 있다.

2007년 2월 28일자로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역의 구분과 관련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좁혀지지 않는 학계 간의 의견 차이와 일정상의

* 경북대학교 박사 과정, spring9@paran.com

문제로 영역 구분에 대한 문제는 7차 교육과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의 수차례의 협의회에서 영역을 다시 세우자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국어가 우리의 사고와 삶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펼쳐졌다는 것은 국어교육의 위상을 올곧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사용의 네 가지 활동은 실제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서로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네 가지 언어 사용 활동을 적절히 묶어 주는 것이 교육의 집중도나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읽고 쓰는 활동¹⁾은 학생들의 인지발달단계와 관련하여 학년에 따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Beyer(1988)에 의하면 사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적 조작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조작의 기능(Skills)을 증진시키면 전반적인 사고활동도 향상된다고 한다. 읽기와 쓰기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의미구성과정을 ‘글’을 매체로 하여 교육시킴으로써 국어교육을 알차게 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보다 풍부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와 글의 강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층의 내용 요소를 찾아야 한다. 논자는 ‘사고의 요소’를 설정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내용 체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쓰기 영역을 살피되 사고하는 방법을 통합적 접근의 길로 삼고자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어’과목의 <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 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두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공통되는 사고 요소를 뽑아 재구성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7차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과목의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11학년부터는 심화선택 과목인 ‘독서’와 ‘작문’과목에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고, 교육 내용의 구성과 제시에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뿐이다.

다. 그리고 글과 사고 과정을 연계시키는 읽기와 쓰기 영역의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통합적 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통합적 접근의 기본 관점

1. 총체적 언어 교수²⁾와 담화 통합

교육과정 통합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총체적 언어 운동이다. Goodman (1986)은 총체적 언어 교수는 아동들에게 언어와 사고를 통합하는 올바른, 그리고 내용이 풍부한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는 교육철학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읽기는 단지 고안되거나 형식에 얽매인 기초 독본의 선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현실세계에서 읽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은 읽기 활동을 의미한다. 내용이 풍부하고 참다운 읽기, 사고, 언어 경험은 필연적으로 교과 및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학습으로 나아간다. 총체적 언어는 의미 있는 맥락 속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통합이다. 이런 총체적 언어 교수의 관점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제’와 ‘맥락’의 강조로 반영되어 드러난다.

담화 통합(discourse synthesis)에서 텍스트의 이해(읽기)는 필자가 쓴 기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텍스트의 구성(쓰기)은 의미의 구성 과정이며, 독자를 위하여 기호를 텍스트의 의미 단서로 사용하는 과정이다. 담화 통합은 필자들이 여러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 관련된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Spivey(1997)이 사용한 용어이다.

2) Donna M. Wolfinger & James W. Stockard Jr.(1997), *Elementary Method : An Integrated Curriculum: An imprint of Addison Wesley Longman, Inc.*(강현석 외 역 (2006),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참조

이는 사회구성주의에서의 읽기와 쓰기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고 쓰는 과정에서 필자와 독자는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가 속한 담화공동체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과 그 속에서 형성된 관습을 따르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관찰과 모방, 창조적 생성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은 쓰기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다. 읽기와 쓰기를 의미 구성의 과정과 담화 공동체의 사회적 소통행위로 이해함은 심층의 작동 원리는 같지만 표층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상호 역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기에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설득력이 높아진다.

2. 읽기와 쓰기의 성격

글은, 특히 설명이나 논증이 들어 있는 글들에는 대상에 대해서 필자가 인식하고 개념들의 체계를 세우고 그들을 해석하는 과정과 결과가 들어 있다. 글을 읽는 행위는 독자가 필자의 그런 사고의 과정을 따라가 주고 자기의 사고 수준과 비교하는 일들이다. 정서를 표출하는 글이라고 해서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글에도 필자 나름대로의 인식과 개념 체계와 해석이 들어 있는데 다만 읽기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자가 표현한 정서를 독자의 삶에서 공명(共鳴), 공감(共感)하는 수준까지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읽기나 쓰기를 연구한 이들은 읽기와 쓰기의 사고 요소를 지나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를 사고의 과정으로 본 연구도 많다.

Squire(1983)은 읽기와 쓰기를 사고(thinking)와 관련지어 작문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독해는 학습자로 하여금 작자가 표현한 의미와 구조를 재구성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둘 다 비판적 사고과정으로서 동일한 인지과정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즉, 읽기와 쓰기가 인지과정과 관련된 의미구성과정으로서 적극적인 사고 활동이라는 것

이다. Boutwell(1983)은 읽기가 쓰기의 책략이고, 쓰기가 읽기의 책략으로서 둘 다 다차원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 인지 과정으로 보았다. Goodman & Goodman(1983)은 읽기에서 글(text)을 예견하는 모든 스키마는 근본적으로 쓰기에서 사용하는 스키마와 동일하다고 보았고, Elkind(1976)는 읽기시작에 필요한 지적과정을 개념형성에 대한 분석으로 보고, 개념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의적인 쓰기도 유사한 활동으로 보았다.³⁾

이들은 모두 읽기나 쓰기에서 대상의 인식이나 해석 등 사고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견해들은 인지과정과 사고 활동이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 발달한다는 공통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상태(2002)에서는 국어교육은 지식 구성의 내면화 교육이어야 하며 사고와 논리를 글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 거기에서 글의 의미 구성 과정을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과 연관시켜 [문제 인식하기-개념체계 세우기-사태 해석하기-논리적 사고/추리-완결체 확인]의 과정으로 정리했다. 문제 인식하기는 과제를 구성하는 중요 개념을 인식하여 과제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개념체계 세우기는 과제와 하위 과제간의 의미 관련과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맥락적이고 다차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사태 해석하기는 과제와 관련된 여러 사태들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깊게 따져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 의해 옳고 그른 해석을 판별하여 비판적으로 사태를 해석할 수 있다.

논술의 능력은 읽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상태(2005)에서는 논술 능력도 위와 같이 분석하였다.

다음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⁴⁾에서 읽기와 쓰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박주영(1992), “읽기/쓰기의 통합지도 방안 모색”, 『청람어문학』 제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38~242 참조

4)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체계는 ‘실제, 지식, 기능, 맥락’의 네 범주로, 7차 교육과정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식’과 ‘맥락’에 일부 포함시켰다. 특히 글의 본질 및 특성, 언어 자체의 본질 및 특성,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요소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실제적인 읽고 쓰는 과정의 총체적이고 문화적인 면모를 강조하려는 취지이다.

<표 1> 개정 교육과정 읽기·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읽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설득하는 글 읽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쓰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설득하는 글 쓰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쓰기 •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지 식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지 식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고쳐 쓰기
맥 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맥 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와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를 비교해 보면, 실제, 지식, 맥락은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고, 기능만이 읽고 쓰는 표층적 과정의 차이를 드러낼 뿐이다. 이는 읽기와 쓰기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읽기의 기능이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쓰기의 기능이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고쳐쓰기로 제시된 것은 읽고 쓰는 과정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미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와 쓰기의 성격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활동과정의 차이점만을 드러내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기능’ 중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읽기의 내용 확인과 추론, 쓰기의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읽기와 쓰기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지나치게 단순해서 사고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생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인드맵이나 나무 그리기 등의 기능적 책략에 대한 논의만 있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태와 연관지어 내용을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즉, 사고 과정으로서의 쓰기를 구체화시킨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표 2> 읽기·쓰기 영역과 사고 요소

교육과정의 '기능' 항목	사고 요소 강조
<읽기> • 내용 확인 • 추론 <쓰기>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Squire(1983) : 읽기와 쓰기는 둘 다 비판적 사고과정으로서 동일한 인지과정의 반영이다. • Boutwell(1983) : 읽기가 쓰기의 책략이고, 쓰기가 읽기의 책략으로서 둘 다 다차원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 인지 과정이다. • Goodman & Goodman(1983) : 읽기에서 글(text)을 예견하는 모든 스키마는 근본적으로 쓰기에서 사용하는 스키마와 동일하다. • Elkind(1976) : 읽기시작에 필요한 지적과정을 개념형성에 대한 분석으로 보고, 개념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창의적인 쓰기도 유사한 활동이다. • 이상태(2002) : 읽고 쓰는 과정은 사고 과정의 자세화이다.

읽고 쓰는 활동의 과정을 기술하고 엮으려는 노력은 기존의 여러 학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읽고 쓰는 활동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생성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의 방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태(2002)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의미구성 과정으로 보고 함께 지도해야 한다는 관점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에서 출발하며,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사고력 함양의 길을 두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열 수 있다.

III. 읽기와 쓰기 영역의 검토

1. 교육 내용의 특성과 문제점

1) 글의 수준과 범위

다음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와 쓰기 영역의 글의 유형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 10년 동안 학생들이 두 영역에서 경

힘해야 할, 즉 학생들이 수용하고 생산해야 할 글의 수준과 범위를 재구성한 것이다.⁵⁾

<표 3> 읽기 영역의 글의 수준과 범위

학년 목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정보 전달	짧은 글	짧은 글, 설명문	설명문, 설명서	사진	서사문, 역사서	관점이 뚜렷한 글	읽기를 설명한 글	설명하는 글	실용서	사회적 규약, 기사문
설득				의견을 제시하는 글	광고, 서평	논설문	독자의 다양한 이해가 가능한 글	설득하는 글, 사실, 시사평론	논평	평론, 판결문, 논설문, 평론
사회적 상호 작용			독서 감상문			참여를 요구하는 글	문제해결이나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글	사회문제를 다룬 고전수필, 시론	선언문, 총평	면담 기사

<표 4> 쓰기 영역의 글의 수준과 범위

학년 목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정보 전달	소개하는 글	요약하는 글	설명문	요약하는 글	기사문	요약하는 글	설명문 실험 보고서	설명하는 글, 기사문	홍보하는 글	전기문 해석하는 글
설득	의견을 제시하는 글	요청하는 글	의견을 제시하는 글	제안하는 글	찬성/반대하는 글	연설문	건의하는 글	의견을 제시하는 글	논증하는 글, 서평	시평
사회적 상호 작용		제안하는 쪽지 글	감사하는 글	소식을 주고받는 글	사과하는 글	축하하는 글	격려·위로하는 글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조언·충고하는 글	식사문

5) 정서표현의 목적과 관련한 글은 논제의 성격과 거리가 있어 제외하고 정리했다.

이러한 글 유형의 제시는 학생들의 글 수용과 생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즉, 읽고 쓰는 활동이 학생들의 삶과 밀착되어 이루어지도록 생활과 관련한 글(실용서, 광고, 건의하는 글, 기사 등)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글을 제대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는 교육적 의도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고 답답해하는 국어교육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교육과정 개정의 의도가 문서화되면서, 실제 수업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먼저 표층적으로 따져 볼 때, 읽기 영역에서만 한 학년에 기본적으로 제시된 글의 유형이 네 가지로, 1~10학년까지 학생들이 익혀야 할 글의 유형이 읽기 영역에서만 최소한 40개 이상이 된다. 또한 각 유형마다 관련된 성취기준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제시되었고, 각각의 성취기준에 관련한 내용 요소의 예가 3~5가지씩 제시되어 있어, 내용 요소가 지나치게 많고 산만하게 제시되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지고 이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 제시된 각 글의 수준이나 유형이 일정한 질서 없이 나열되어 있다. 쓰기 영역에서 설득의 목적으로 생산해야 할 글을 학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의견의 제시(1), 요청(2), 의견의 제시(3), 제안(4), 찬반의 글(5), 연설문(6), 건의(7), 의견의 제시(8), 논증(9), 시평(10)으로, 일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쓰기에서도 제안, 감사, 소식, 사과, 축하, 격려, 위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위계를 갖춰야 할 필연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글은, 읽기 영역에서는 설명문이 2, 3, 7, 8학년에 걸쳐 제시되었고 쓰기 영역에서는 요약하기가 2, 4, 6학년에, 설명하는 글쓰기가 3, 7, 8학년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 글은, 읽기 영역에서는 논설문이 6, 8, 10학년에, 쓰기 영역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기가 1, 3, 4, 7, 8학년에 제시되어 있다.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에 제시

된 글의 범위가 공통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논증텍스트와 설명텍스트로 대표된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는데, 통합의 방법이 단순히 ‘설명문을 읽고 요약하여 쓰기’식의 활동만을 기술한다면 실행이 지나치게 단순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수업으로 실행할 때, 읽기와 쓰기에 제시된 글의 유형을 정리한 후, 공통되는 글의 유형을 선정해서 학습자의 수준과 글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학년 영역별 ‘글의 수준과 범위’에서 위계성이 잘 드러나도록 진술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년별, 영역별 검토를 통해 동일한 글 유형을 연관성 있게 배치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여 적절한 양을 제시해야 한다.

2) 성취기준의 분석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은 글의 ‘형식특성’요소와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범주실제, 지식, 기능, 맥락의 세부 ‘내용특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지식’의 경우, 글의 규범이나 관습과 관련된 요소, 언어 사용과 관련된 요소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글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되어 있어 자칫하면 글의 특성과 자질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표 5> 학년별 내용의 예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읽기-6 (2)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 논리 전개와 타당성과 적절성 평가하기 • 논증이 요구되는 상황 맥락 이해하기
쓰기-7 (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 설명문의 특성, 통일성의 개념 이해하기 •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 선정하기 • 통일성 있게 내용 정리하고 표현하기 • 통일성을 고려하여 고쳐쓰기

위에서 알 수 있듯이 6학년 읽기의 (2)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설문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 후, 논설문의 논리적 구조인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해당 글의 내용을 확인, 이해하고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7학년 쓰기의 (1)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 명문의 특성과 통일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 한 편의 글을 생성해야 한다. 이는 자칫 글의 겉 형식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데 치우칠 수 있다.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읽기 영역 중 기능 부분의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읽기 영역 중 기능 부분의 성취기준

읽기 기능	학년별 성취기준
내용 확인(7개)	1(3), 2(2), 3(1), 3(2), 4(1), 5(1), 5(3)
추론(8개)	2(3), 2(4), 6(1), 7(2), 9(1), 9(4), 9(5), 10(2)
평가(16개)	3(3), 4(2), 4(3), 5(2), 5(4), 6(2), 6(3), 7(3), 7(5), 8(2), 8(5), 9(2), 10(1), 10(3), 10(4), 10(5)
감상(3개)	4(4), 6(4), 7(4)

* 1(1)은 1학년에 제시된 성취기준(1)이란 의미이다. 평가와 감상은 분석의 필요상 나누어 제시하였다. 읽기의 성취기준은 총 44개이다.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총 44개 중 기능관련 내용 34개로, 지식이나 맥락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맥락과 관련한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은, 상황 맥락은 1(4)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은 8(3), 8(4), 9(3)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맥락을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서, 맥락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학생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맥락 요소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쓰기 영역의 경우 1~10학년까지 모든 성취기준이 한편의 글을 쓰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모든 성취기준을 ‘한 편의 글을 쓴다’로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제시된

글의 유형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더 클 수 있다.

2. 사고 요소를 통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검토·분석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 수업으로 실행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문제점은 글의 유형 제시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글의 수준과 범위가 일정한 위계성을 갖추지 못한 점, 글의 지식이 강조될 우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덧붙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의 교육적 의미는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지침이 되는 내용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맥락을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서, 맥락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학생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맥락 요소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읽기와 쓰기의 의미구성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사고 요소를 기준으로 삼은 두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읽기와 쓰기를 공통된 글을 자료로 삼아 두 활동의 근본적인 사고과정을 교육함은 표층적인 형식을 교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심층적인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제기된 학습의 부담과 위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력 함양을 위한 통합적 접근은 실제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과 맥락을 중요시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 여겨진다.

통합적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의 통합이 아니라, 글과 관련한 의미의 구성과정으로서의 통합이다. 실제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생성하는 사고의 과정이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글을 읽고 쓸 때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인식하여 생각을 체계화하는가, 글쓴이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이 글을 쓰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 즉 사고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에는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요소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된 내용 요소의 예에도 내용생성과 관련한 내용은 자료를 조사하고, 선정하는 책략에 대한 것만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의 겉 형식에만 치우친 한계로서 학생들의 읽고 쓰는 과정에 대한 사고차원의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한 사고 차원의 접근은, 각각의 활동을 분리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읽고 쓰는 연속적 활동, 사고의 흐름으로 파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읽고 쓰는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hanahan 등(1993)은 교육과정의 통합은 인지적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역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가 기능, 구조, 전략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두 영역의 통합은 그것에 들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통합의 정신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글’과 ‘책략’의 강조로 드러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글’이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의 영역 통합적 접근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해 준다.

IV. 통합적 접근을 위한 수업 설계

1. 글과 사고의 과정

글과 실재를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의의는 학생들이 읽고 쓰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철학적 바탕에서 글 유형을 제시하고 글의 수용과 생산을 도달 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열된 글 유형을 어떻게 제시하고 가르쳐야 학생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국어교육이 될 것인가? 학

생들의 사고와 언어가 일치하는 모습, 즉 학생들이 글을 즐겁게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술술 써내려가는 모습이 바로 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Carmen Collins는 학생들이 독자, 사고자, 작자로서의 역할을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하려면, 쓰기, 읽기 교육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한다. Lusford는 모든 언어 기능은 관련되어 있는데 독해수준은 문장형성의 복잡성과 관련되고 다시 종합 사고과정과 관련된다며, 학생들에게 추론 능력, 추상화, 개념화, 종합화의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했다.⁶⁾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자신의 사고의 과정을 익히고 다듬고 펼쳐내는 것이다. 글을 통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활동이자 사고 활동인 셈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사고의 오랜 훈련 끝에 가능한데, 이상태(2002)에서 사고력 함양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틀은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에 그 절차를 양방향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표 7> 문제 해결의 방법 : 이상태(2002)에서 재인용

단 계	사고 방법
1) 문제 인식하기	관찰, 기억, 비교, 대조, 지정, 정의, 이름 짓기
2) 개념체계 세우기	구분, 분류, 추상화와 구체화
3) 사태 해석하기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 행위와 의의
4) 논리적 사고	연역과 귀납, 전체 분석

글을 읽고 쓰는 과정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사고의 과정과 일치하기도 하는데 글의 특성에 따라 1)~4) 단계가 선택적으로 쓰일 수 있다. 글과 사고의 과정을 연결시킨 문제해결의 틀을 활용하여 각각의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해 보았다.⁷⁾

6) 박주영 앞의 논문 244쪽에서 재인용

7) 고준화(2007), “글의 사고과정 해체를 통한 논증문 읽기지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since 1969), 1~24 참조

1) 1단계 : 문제 인식하기

- (1) 주어진 과제를 여러 가지 문제로 가르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다시 더 자세한 문제를 만들고 답해본다.
- (2) 논의할 문제를 확인하고, 정식화한다.
- (3) 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위 문제들을 떠올려 본다.
- (4) 주어진 과제를 설명하고 재진술해 본다.
- (5) 과제의 핵심적인 문제요소나 결정적인 갈등요소를 발견한다.
- (6)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범위를 한정한다.
- (7) 여러 가지 문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하거나 다른 식으로 정의를 내려 본다.
- (8) 문제를 보다 넓은 관점, 맥락 속에 놓고 파악해 본다.
- (9) 문제가 놓여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본다.
- (10) 문제를 보다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상세화한다.

2) 2단계 : 개념 체계 세우기

- (1)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묶고 나누고 분석해 본다.
- (2) 여러 가지 문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덧붙여 첨가해 본다.
- (3) 문제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고 분석해 본다.
- (4) 일단 문제가 정의되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하위 논점이나 하위 문제를 탐구한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쉬운 부분들로 나누어 작업한다.
- (5) 하위 문제를 분리할 때 그 하위 문제들이 어떻게 보다 큰 문제의 부분으로서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3) 3단계 : 사태 해석하기

- (1) 여러 가지 사태를 시간이나 공간 순으로 나열해 본다.
- (2) 여러 가지 사태를 원인과 결과, 행위와 의의의 관계로 짚지어 본다.
- (3)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은 보이지 않은 사태를 상상해서 추리해 본다.
- (4) 사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보거나, 사태를 부정해 본다.
- (5) 사태의 모든 측면에 근거하여 결론을 탐구해 본다.

4) 4단계 : 논리적 사고(추리)

- (1) 제시된 사태를 부정해 보거나 물어 봄으로써 사태간의 간격을 논리적으로 메워 본다.
- (2) 논증의 모든 전제들에 의심을 품고 이 전제들을 옹호하라
- (3) 논증을 충분히 전개해 본다. 논거로 사용되는 예가 대표성이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따져 본다.
- (4) 논증의 모든 전제들에 의심을 품고 이 전제들을 옹호해 본다.
- (5) 논증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생각해 보고 수정해 본다.
- (6) 의심이 가는 문제점들을 미리 생각해 해 보고 반대 의견들을 고려하여 방어해 본다.
- (7)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5) 5단계 : 표현하기

- (1) 생각을 치밀하고도 충분히 하여 개요를 작성한다.
- (2) 글의 맥락에 맞는 적절한 개념이나 용어를 구사한다.
- (3)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체계적으로 구상한다.
- (4) 문단의 분량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글을 쓴다.
- (5) 문장을 매끄러우면서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 (6) 원고지 사용법과 맞춤법을 따라서 글을 쓴다.

(7) 완성된 글을 다시 한 번 읽고, 고쳐 쓴다.

2. 글의 수준과 범위의 재구성

읽기와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글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읽기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행위이고, 쓰기는 글을 생산하는 행위이므로 글을 중심으로 이 둘 간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 글의 구조나 문장 구조, 어휘, 글의 내용 등의 각 요소들의 관련성 및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이 글과 실체를 중시해서 글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한 점은 이러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 때, 먼저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 영역의 글의 유형을 분석하여 공통되거나 중복되는 글의 수준과 범위를 정리·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글의 수준과 범위는 읽고 쓰기 위한 자료집의 형태로 제시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풀어낼 수 있는 학습장의 형태로 나누고 묶어, 교과서를 제작한다면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적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1~10학년의 읽기와 쓰기 영역에 제시된 글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정리한 후, 같은 학년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글을 뽑아 관련된 사고 요소를 제시해 보았다. 아래 표에서 1~10학년의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공통되는 글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다. 각각의 글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과 성취기준에서 사고의 흐름과 관련된 요소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수업을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 읽기·쓰기 영역의 통합 요소

학 년		읽기 영역	쓰기 영역	통합적 접근 (글과 사고 요소)	공통 유형
1	글의 수준과 범위	일상생활 경험을 담은 일기나 동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글	일상생활과 관련한 글	일기
	성취 기준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 과 연관 지어 이해한다.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 로 쓴다.	사고 요소: 관찰하기, 경 험과 연관짓기	
2	글의 수준과 범위	대상을 쉽게 설명하는 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하는 글	간단한 설명문을 읽고 중 요한 내용을 요약한다.	설명문
	성취 기준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 용을 파악한다.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중 요한 내용을 간추려 쓴다.	사고 요소: 내용의 중요 도 파악하기, 비교와 대조	
3	글의 수준과 범위	물건의 사용 절차와 방 법에 대해 쉬운 낱말과 문장으로 표현한 설명서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	절차, 방법	설명서
	성취 기준	설명서를 읽고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일의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	사고 요소: 관찰, 기억, 일 의 과정과 방법 설명하기	
4	글의 수준과 범위	인물, 대상,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글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읽는 이에게 제안 하는 글	주변 생활 자신의 의견	제안 하기
	성취 기준	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 로 제안하는 글을 쓴다.	사고 요소: 의견의 적절 성 평가하기, 비교와 대 조, 원인과 결과	
5	글의 수준과 범위	사건의 전개 과정과 인 과 관계가 분명하게 드 러나는 서사문, 역사서	재미있는 사건을 상상하 여 쓴 이야기	사건의 관계	서사문
	성취 기준	사건을 기록한 글을 읽 고 인과 관계에 유의하 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 악한다.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사 건 사이의 관계가 잘 드 러나게 이야기를 쓴다.	사고 요소: 사건의 관계 파악하기, 인과관계, 목 적과 수단	
6	글의 수준과 범위	분명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쓴 연설문	주장과 근거/ 문제와 해결	논설문

학 년		읽기 영역	쓰기 영역	통합적 접근 (글과 사고 요소)	공통 유형
6	성취 기준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결 방안이 잘 드러나게 연설문을 쓴다.	사고 요소 : 문제해결능력 및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기, 문제해결방법	논설문
7	글의 수준과 범위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	문제해결방안	건의 하기
	성취 기준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사고 요소 : 주장의 합리성과 설득력 평가하기 및 문제해결능력	
8	글의 수준과 범위	삶의 자세와 인생에 대한 성찰을 서술한 자서전	자신의 삶의 궤적과 그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자서전	자신의 삶과 맥락	자서전
	성취 기준	자서전을 읽고 글쓴이의 삶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이 잘 드러나게 자서전을 쓴다.	사고 요소 : 내성 및 객관화하기, 사태 해석하기	
9	글의 수준과 범위	사회적 현안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과 평가가 잘 드러난 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	타당한 논평	논증 하기
	성취 기준	논평을 읽고 글쓴이의 태도와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	사고 요소 : 비판적 사고 및 논증력 키우기, 논리적 사고	
10	글의 수준과 범위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도서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	심미적 경험 평가하기	비평문
	성취 기준	인기 도서를 읽고 책의 가치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	사고 요소 : 비평적 능력 기르기, 문제해결방법	

3. 통합적 수업의 실제

7학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실제 수업을 구안해 보겠다. 먼저 같은 학년에서 같은 유형의 글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각각 ‘건의하는 글’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건의하기는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을 가치판단에 따라 해석한 후,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근본적인 문제점의 체계를 세운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문제해결의 사고 과정을 따르는 활동이다. 활동의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논증텍스트로 범주화된다.

‘건의하는 글’은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태 해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해결 방안이 바뀌는 사고의 층위가 다양한 글이다. 단순히 글의 유형적 특징으로만 보면 문제제기와 해결책의 구조로 이루어지지만,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 학습자가 논증의 틀 뿐만 아니라 대상을 가정하고 실제 담화의 양상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에 상당히 다양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표 9> 건의하는 글의 제시

— <글의 수준과 범위> —

-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읽기)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쓰기)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읽기-7 (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건의하는 글의 목적과 특성 이해하기 •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 파악하기 •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 판단하기 •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태도 기르기
쓰기-7 (3)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 건의하는 글의 특성 이해하기 • 문제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 간결하고 명확하며 진지하게 표현하기 • 건의하는 글이 소통되는 일반적인 맥락 이해하기

먼저, 읽기 영역의 학습 요소로는 건의하는 글의 특성과 구조 알기, 건의하는 내용의 확인, 문제 상황의 파악과 해석,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평가하기, 글쓴이의 사고 평가하기 등을 찾을 수 있다. 쓰기 영역의 학습 요소로는 건의하는 글의 특성과 구조 알기, 내용 생성하여 정리하기, 개요 짜기, 표현하기 등이 명시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읽기와 쓰기 영역의 핵심적인 사고 요소는 ‘주장에 대한 평가’와 ‘문제 해결’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건의하기’의 텍스트적 성격을 사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건의하기’는 개인이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이 표현되는 과정으로서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읽기를 통해 건의하는 글의 특성과 구조를 익히고, 글쓴이의 문제해결 사고의 과정을 추정하여 재구성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학생이 글쓴이가 되어 실제 건의하는 글을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사고한 후 표현하는 과정을 따르면 좋겠다.

이때, 읽기의 단계에서는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파악하고 따라잡음으로써 사고하는 힘을 기른다. 문제의 사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따라 잡고,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덧붙여 좋은 글인지, 부족한 글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판단해 본다. 이어서 역순으로 건의하는 글을 쓰되, 내용생성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과의 내용과 사고 과정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문제해결접근법을 기본 바탕으로 삼았다. 이 접근법에서는 학습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해 간다. ‘탐구’란 문제해결의 과정을 말하며 귀납적 모형의 성격을 띤다.

<표 10> 건의하기의 영역 통합적 수업 모형

단 계	세부 단계	수업 내용
1. 과제 제시	1) 글의 제시	사회 현안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건의하는 글을 제시한다.
2. 글쓴이의 사고 과정을 추측하며 따라 읽기	1)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읽기 -대상 인식하기 -개념 체계 세우기 -사태 해석하기 -논리적 사고	다음 사항을 학생 스스로 생각하며 치밀하게 읽도록 교사가 지원한다. 1) 글쓴이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관찰하여 정리했나? 2) 글쓴이가 문제를 어떤 관점과 층위에서 바라보고 있나? 3) 글쓴이가 해결 방안을 어떻게 나열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는가? 4) 주장과 근거는 타당한가? 주장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 5) 해결 방안을 세우고 펴가는 과정이 논리적인가?
	2) 내용 구조 파악	1) 글의 유형적 특성 파악 -문제제기, 동기, 청원 2) 표현 전략 파악 -설득 전략, 필자의 인식
3.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쓰기	1)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쓰기 (내용 선정하기) -과제 선정 -대상 인식하기 -개념 체계 세우기 -사태 해석하기 -논리적 사고	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반박하거나 설득하는 글쓰기 1) 입장을 바꿔 사태 해석하기 2)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생각해 보기
		기관이나 단체 또는 상대에게 자신의 곤란한 점을 제기하고 해결해 줄 것을 설득하는 글쓰기 1) 문제 인식하기 : 곤란한 점이나 갈등 상황을 관찰하고 정리해 본다. 예) 공항 근처의 학교에서 소음에 시달리는 학생들 2) 문제와 관련하여 명백한 상황과 명백하지 않은 상황을 추측, 구별한다. 3) 가능한 해결책들을 나열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세운다. 4) 의심이 가는 문제점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반대 의견들을 고려하여 방어해 본다.

단 계	세부 단계	수업 내용
3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쓰기	1)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쓰기 (내용 선정하기) -과제 선정 -대상 인식하기 -개념 체계 세우기 -사태 해석하기 -논리적 사고	5)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본다. 6) 초안을 작성해 본다. 7) 초안을 다시 읽고 검토한 후, 자신의 사고과정을 되짚어 본다.
	2) 표현하기	1) 글의 유형 확인하기 2) 표현 전략 세우기 3) 개인별 글쓰기
	3) 평가	1) 상호 평가 2) 교사 평가 3) 고쳐 쓰기

이 밖에도, 같은 글의 유형이 읽기와 쓰기 영역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1학년(일기), 3학년(설명문, 독서 감상문), 4학년(의견 제시하는 글/ 제안하는 글), 7학년(설명문, 건의하는 글), 8학년(설명하는 글, 설득하는 글/ 의견을 제의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미 있고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맥락적인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글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점화된 내용을 통해 사고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한 후, 단원을 통합 영역으로 구성하여 설정한 후 수업의 내용을 설계하면 좋을 듯하다. 또한 읽기와 쓰기의 사고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글쓴이의 사고과정을 따라 비판적으로 글을 수용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좋은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갖춰지면 좋겠다. 이처럼 영역 통합적인 단원 구성을 확대하고, 각 영역의 독립적이거나 특성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목표나 활동의 중복을 최소화시킬 때 학습량도 적절히 조정되고, 교육의 집중도와 교육의 효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은 제시되었다. 이제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교사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으로는 사고를 녹

여내고, 길으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해서 가르치는 틀을 만들고 따르다면 바람직한 국어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V. 마무리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글과 실제, 맥락의 강조이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 글을 수용·생산하면서 그러한 글의 언어적 특성과 글을 둘러싼 맥락과 글을 수용·생산하는 원리를 통합적으로 습득하도록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실제적이고 풍부한 언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글 층위를 내용 요소 체계의 상위에 두고 이러한 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지식, 기능, 맥락으로 구분하여 영역의 하위 범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 요소 체계의 변화는 분절적이고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인 국어교육을 강조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글의 유형의 제안은 학생들이 글 수용과 생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언어 사용의 목적별, 학년별로 제시한 개별 글의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글에 따라 내용 요소의 제시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내용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글 유형이 실제 드러나는 걸 형식에 치우쳐 나열됨으로써, 글에 담긴 사고의 흐름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개별 글에 대한 이해와 생산에만 머물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학습량 과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유형에 대한 거시적이고 통찰적인 안목과 함께, 글 유형과 구조에 대한 제반 이론,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에 대한 정치한 연구,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글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글의 수준과 범위가 단순히 글의 형식이나 내용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글의 수준이 글에 담겨진 어휘량과 어휘의 수준, 정보의 양과 질, 명제의 내용

과 수, 사고의 방식 등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계량화되어 체계가 세워져야 학년별 수준에 따른 위계성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읽기와 쓰기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글에 대한 연속적인 수용과 생산의 활동인 동시에, 세상에 대한 치밀한 인식의 과정이다. 학생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고가 겹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읽기와 쓰기는 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활동의 중심이다. 실제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와 쓰기는 연속된 일련의 입체적인 사고 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학년별 학생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의 글을 자료로 제시하고, 읽기와 쓰기를 사고의 흐름 중심으로 통합하여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과 사고의 결합, 영역과 활동의 통합,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실재를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 구현될 것이며 사고력을 함양하는 모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 본 논문은 2008. 2. 26. 투고되었으며, 2008.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춘화(2007), “글의 사고과정 해체를 통한 논증문 읽기지도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Since1969), 1~24.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 김도남(2007),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내용요소 선정 기준 탐색”, 『새국어교육』 7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61~89.
- 김정자(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쓰기>영역 내용 검토”, 『작문연구』 3집, 작문학회, 169~197.
- 박정진(2007), “2007년 수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국어국문학』 145호, 국어국문학회, 411~435.
- 박주영(1992), “읽기 / 쓰기의 통합지도 방안 모색”, 『청람어문학』 제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34~259.
- 손영애(2007), “새로운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몇 가지 소론”, 『국어교육』 122호, 한국어교육학회, 117~144.
- 서 혁(2006), “새로운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작문연구』 3집, 작문학회, 103~137.
- 이도영(1998), “언어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상태(1993), 『국어교육의 길잡이』, 한신문화사.
- 이상태(2002), “사고력 함양 중심의 작문 교육 계획”, 『어문학』 75, 한국어문학회, 61~75.
- 이상태(2005), “논술과 구술의 기초 다지기”, 『새국어생활』 15-4, 국립국어원, 39~52.
- 이성영(1991), “국어교육의 내용 설정 및 그 구조화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학』 제1집, 국어교육학회, 79~100.
-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제7차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C 2004-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연구자료 ORM 2005-3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국어과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2005-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연구자료 ORM 2005-56.
- Donna M. Wolfinger & James W. Stockard Jr.(1997), *Elementary Method : An Intergrated Curriculum* : An imprint of Addison Wesley Longman, Inc.(강현석 외 역 (2006), 『통합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Goodman, K.(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 Heinemann.
- Shanahan, T., Robinson, B., & Schneider, M.(1993), Integrating curriculum : Intergration of curriculum or interaction of people?, *The Reading Teacher*, 47(2), 158~159.
- Spivey, N. N.(1984), *Discourse Synthesis : Constructing texts in reading and writing*, 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초록>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쓰기의 통합적 접근 모색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춘화

이 글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 본 후, 사고력 함양을 위한 영역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이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글(text)과 실제의 강조’이다. 글의 본질 및 특성, 읽기와 쓰기를 위한 개인적, 사회·문화적 맥락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실제적인 읽고 쓰는 과정의 총체적인 면모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읽고 쓰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글의 수준과 범위’를 제안한 것은 교과서 개발과 수업 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글의 유형은 언어사용의 목적별로 다양한 개별 글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글의 유형을 검토하여 학년별, 영역별로 글의 수준과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위계성이 잘 드러나도록 재배치하여 진술해야 한다.

읽기와 쓰기를 의미 구성 과정으로 이해하고, 글과 사고 과정을 연결시키는 통합적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통해 교과서 개발이나 수업의 설계에서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와 쓰기의 영역 통합적 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핵심어】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쓰기, 통합적 접근, 사고과정, 사고력

<Abstract>

Integrated Approach through Reading and Writing as
Practices of Thinking

—Revise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rt—

Ko, Chun-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revise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rt and to grope for integrated approach methods based on the contents of reading and writing and those of each grade textbooks.

The point of the revise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rt is to emphasize on “the text and the practice”. It means that the individual and social context is added to the contents of a textbook, which is to emphasize on all the process of the practical reading and writing function.

It can be an educational intention in that their own daily life will be reflected in their reading and writing.

I expect that the type of text, the level and scope of texts in the revised curriculum proposes must be useful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nd syllabus planning. The various types of text from the revised curriculum are classified by each purpose of speech act.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text should be rearranged to clarify specific criteria and priority appropriate for each grade and type.

I understand reading and writing as the process of composing meaning and suggest the effective practice of the revised curriculum by designing integrative class which connects texts with the process of thinking. Through this process, I will grope for the integrated method for

both areas,—reading and writing—in the development of text and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Key words】 Revised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art, reading, writing, intergration, process of thinking